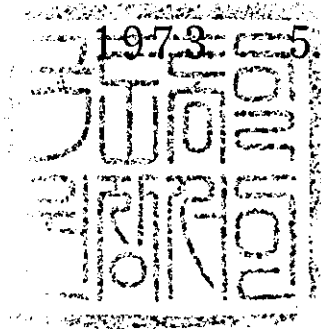


# 소련의대외정책기조와그변천



이 보고서는 국토 통일원 73년도  
상반기 연구용역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5.

국 제 문 제 연 구 소

연구원 지 주 선

|                           |    |
|---------------------------|----|
| 1. 对外政策의 基調 .....         | 2  |
| 2. 对外政策의 變遷過程 .....       | 4  |
| 가. 革命外交期 .....            | 4  |
| 나. 承認獲得期 .....            | 4  |
| 다. 集團安保 追求期 .....         | 6  |
| 라. 對獨逸接近期 .....           | 7  |
| 마. 第 2 次 世界大戰期 .....      | 8  |
| 1) 美·英·蘇 聯合密月期 .....      | 8  |
| 2) 聯合破綻期日 .....           | 9  |
| 3) 「스타린」과 戰後處理問題 .....    | 10 |
| 바. 國際緊張期 .....            | 12 |
| 사. 平和共存 提唱期 .....         | 14 |
| 1) 「말렌코프」의 對活外交 .....     | 14 |
| 2)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外交 .....    | 15 |
| 아. 現代 蘇聯外交 .....          | 21 |
| 1) 社會主義國과의 關係 .....       | 21 |
| 2) 民族解放鬪爭의 支援 .....       | 24 |
| 3) 平和共存原則의 推進 .....       | 26 |
| 4) 第 23 次 黨大會의 外交政策 ..... | 29 |

## 1. 對外政策의 基調

「맑스」, 「엔겔스」의 共産黨宣言은 世界의 共産化를 窮極의 目標로 하였으나 이 目標은 그대로 蘇聯外交의 最高目標가 되어 蘇聯은 自國을 世界共産運動의 戰略的基地로 看做해왔다. 이와같은 까닭에 蘇聯의 外交政策은 世界共産運動의 戰術로서의 面과 國家의 政策으로서의 面과의 2個의 面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世界共産化의 目的이 크게 提唱된것은 革命直後 數年間으로서 1927年 一國社會主義建設方針이 採択된 後부터는 後退하고 蘇聯國內에 있어서의 社會主義建設目的에 從屬되어 自由世界로 부터의 反蘇政策에 對한 「모스크바」의 對應策의 補助手段, 牽制手段化한 感이 強하게 湧겼다.

蘇聯의 外交政策은 바꾸어말하면 基本的으로는 蘇聯國內의 社會主義建設이라고 하는 要因에 依하여 決定된다. 戰術的인 政策決定의 基礎가 되는것은 黨의 그때그때의 國際情勢分析, 自由世界諸國의 對蘇政策인 것이다. 그 위에 또한 國家의利益,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要因 및 政治地理的條件이 強하게 作用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때의 國際情勢, 對外諸國의 對蘇政策등을 檢討함으로써 「모스크바」의 今後의 對外政策을 豫測할 수 있다.

帝國主義分析에 있어서 이제까지 有效했던것은 「레닌」의 「資本主義 發展의 不均等性의 原則에 따라 帝國主義諸國間의 矛盾은 激化한다. 矛盾은 또한 社會主義國家의 存在에 따라 尖銳化된다. 帝國主義諸國은 이 矛盾解決의 한 方法으로서 社會主義國家의 崩壞를 企圖한다. 一方 社會主義諸國은 帝國主義諸國間의 矛盾을 利用할 수 있다」는 分析이다. 「스타린」은 「資本主義四周」論을 提唱하였고 「후르시초프」는 帝國主義의 侵略的本質은 變하지 않았다

고 帝國主義 諸國으로부터의 對蘇攻擊의 危險性을 警戒하였다.

事實 1917年 10月革命以後의 蘇聯外交의 歷史는 自由世界로 부터의 反蘇政策, 즉 革命直後의 資本主義 14個國의 武裝干涉, 經濟封鎖, 「히틀러」를 蘇聯에 對抗하게 한 「문헨」宥和, 第2次 世界大戰中 第2戰線開設의 遲延, 戰後에 있어서 原爆外交, 冷戰下의 封鎖政策, 「롤백」政策등 危脅에 直面하여, 「모스크바」가 自國의 安全保障을 至上命命으로 하기에 이른것도 當然한 일이라 할수 있다.

蘇聯外交에는 항상 共產主義 「이데오로기」가 붙어다녀 階級意識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레닌」은 「마키아베리」, 「멧테르니히」 「크라우세비치」등을 繼續 研究해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側近에 對해 謀略, 奸計, 懷柔, 妥協, 相對方諸國家間의 矛盾利用, 強敵에 對해서는 그 内部에 侵透하여 内部로 부터의 崩壞를 企圖하여 왔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蘇聯은 또한 外國政府를 相對하지 않고 直接 國民에 呼訴하여 國民들로 하여금 行動하게 하는한편 左翼團體를 利用하여 왔다. 外國貿易도 外交政策의 一部로서 單純한 經濟目的으로만 利用되지 않는다.

「모스크바」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國際法上의 原則도 그것이 自國에 有利한 境遇에만 또한 相對方國家가 그것을 지키는 範圍內에서만 지키고 있다. 條約上의 義務도 그것이 自國에 不利한 경우는 헌신작처럼 버리기가 일쑤다. 國際의 解決에 있어서도 解決에 努力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를 더욱 복잡하게 하거나 擴大, 遲延시키고 相對方을 混亂, 교란시키고 解決의 一步直前に 決裂시키는 경우가 許多히 많다. 核裝備를 背景으로 核武器에 의한 공갈도 그들이 잘 쓰고 있는 手法의 하나이다.

蘇聯의 外交目的을 決定하는 要因을 簡單히 말하면 위에 말한대로이나 蘇聯外交의 歷史를 時期的으로 区分하여 보기로 한다.

## 2. 對外政策의 變遷過程

### 가. 革命外交期 (1917 - 21)

10月革命에 의해서 政權의 座에 오른 「불셰비키」가 最初로 行한 外交行爲는 第1次 世界戰爭으로 부터의 離脫, 社會主義革命의 輸出과 宣傳, 帝政러시아와 諸外國間에 締結된 密約과 不平等 條約의 暴露 및 廢棄, 對外貿易의 國營化등이 었다.

第1次 世界大戰으로 부터의 離脫은 「레닌」의 敗戰主義로부터 出發한 것이며 勢力均衡政策인 것이었다. 蘇聯政權은 獨逸과의 사이에 「브레스트-리드후스크」條約을 締結(1918. 3)하여 戰爭으로 부터 離脫하였다. 그러나 戰爭으로 부터의 離脫과 社會主義革命의 實施는 聯合14個國의 武裝干涉과 經濟封鎖를 誘發하였다.

武裝干涉은 干涉에 있어서의 大義名分이 없었고 干涉軍에 依한 「로시아」人 학살에 따라 「로시아」인의 反感을 사게되어 「로시아」인의 赤軍支持를 加速化시켜 結局 失敗로 끝났다.

世界共產運動의 面에서는 「모스크바」에 國際革命宣傳部를 設置하고 「코민테른」을 結成하여(1919. 3) 「헝가리」革命에 一時的으로 成功하여 獨逸革命을 準備하고 諸外國의 共產黨 結成을 援助하여 上海에서는 外國工場의 「스트라이크」를 指導하였다.

「헝가리」革命은 곧 失敗하였으며 獨逸革命은 中途에서 中止되었고 外國勞動者에 의한 目的的인 革命을 期待했던 「모스크바」의 꿈은 깨어졌다. 또한 資本主義는 崩壞될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世界 共產化運動은 조저하였다.

### 나. 承認獲得期 (1922 ~ 32)

이 期間은 蘇聯外交의 忍耐期라고 볼수 있다. 當時의 蘇聯外

交를 指導하여온 「체체린」은 世界革命과 自由世界와의 友好關係維持가 兩立될 수 없는것이 着眼, 革命과 外交의 分離를 主張하고 諸外國의 蘇聯에 對한 正式承認과 經濟援助의 獲得, 反蘇聯合의 阻止를 課題로 하였다.

當時 「소비에트」政權의 永統을 믿는 國家는 거의 없었으나 時代의 潮流에 따라서 承認國이 漸次 增加하게 되었다.

1924年 2月 英國이 正式承認한 것을 필두로 1925年 1月 日本이 承認하였고 最後까지 承認하지 않던 美國도 1933年 1月 正式承認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체체린」은 英·蘇協定·獨·蘇通商協定の 締結이 成功하였다. 當時 蘇聯과 諸外國間에 調印된 條約 및 協定에는 반드시 「蘇聯은 共產主義革命을 宣傳하지 않는다」는 項目이 挿入되어 있었으나 「모스크바」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종종 問題를 이뤘다.

「체체린」은 勢力均衡에 依하여 反蘇聯合의 構成을 阻止하고 獨逸과의 接近에 의하여 「프랑스」의 反蘇包圍網 構成에 對抗하는 한편 「제노아」會議의 무대이면서 獨逸과 「라바르」條約을 調印(1922)하여 獨逸의 正式 承認을 얻고 1926년에는 新獨·蘇條約을 締結하였다. 또한 旧 敵國인 「터키」와도 友好條約을 調印하였으며 1925년부터 1932년에 걸쳐 諸隣接國과의 不可侵條約을 調印하여 自國의 安全保障을 꾀하였다.

資本主義는 「모스크바」의 豫想에 反하여 崩壞의 징조를 보이지 않았고 外國勞働者階級의 自發的 革命에 커다란 期待를 걸었던 蘇聯의 꿈은 깨어져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은 實現의 可能性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타린」은 1927年 一國社會主義 方針을 取하여 다음 해인 1928年 國民經濟發展 5個年計劃을 提唱,

오로지 自國의 社會主義的 富國強兵에 정진하였다. 5個年計劃은 그後 회수를 거듭하여 7個年計劃, 20個年計劃이 實施되었다.

1933年 「스타린」은 「第1次 5個年計劃은 成功하였다. 國民生活은 크게 向上되었다」고 宣傳하였으며 이때부터 諸外國政府의 「소비에트」政權 崩壞의 期待는 흐려지고 그 国力에 對한 警戒心이 씩트기 始作했다.

다. 集團安保 追求期 (1933 ~ 38)

東北亞에서의 滿洲國의 誕生, 獨逸에서 出現한 「나치」政權, 日本과 獨逸間에 締結된 防共協定, 日·獨·伊 3國의 結合등은 蘇聯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危脅이 아닐 수 없었다.

當時 蘇聯은 「체체린」에 대신하여 「리도비노프」가 外務人民委員의 地位에 올라 外交指導는 「스타린」의 손에 옮겨간 것이다. 「스타린」은 위와같은 國際情勢에 對處하여 內로는 軍事力增強에 힘을 기우리고 外로는 集團安保策을 取하여 世界共產主義運動의 面에서는 人民戰線戰術로서 反「패시즘」戰線의 結成에 努力하였다. 當時 「모스크바」에서는 「蘇聯을 지키자」, 「自由와 民主主義를 爲하여 鬪爭하자」는 등등의 구호가 나돌았고 世界共產運動의 戰術은 蘇聯外交의 要求에 「매치」되어 各國의 共產黨은 「모스크바」의 앞잡이화 하였다.

「모스크바」는 東方에 있어서는 日本에 對해 不可侵條約締結을 提議하였으나 拒否되었고 1935년에는 東支鐵道の 蘇聯側部分을 日本에게 讓渡하여 日本과의 友誼關係維持에 努力하는 한편 1932년에는 中國과 國交를 樹立하였고 外蒙古와 軍事同盟을 締結하였으며 日本에 對備하여 中·英·美國과의 同盟을 企圖하였으나 失敗하였다.

西方側에 對해서는 우선 「프랑스」와 不可侵條約을 締結 (1932年)



하였다. 獨逸에 對備하여 「프랑스」와 同盟을 맺고 「프랑스」에 對抗하기 爲하여 獨逸에 接近하는 것이 「로시아」의 傳統的 政策 이었다. 當時 「모스크바」가 가장 겁을 내고 있던것은 英·仏· 獨逸의 反蘇聯合結成으로서 이의 저지에 온 힘을 기울였다.

「모스크바」는 또한 「폴랜드」, 「핀란드」等 隣接國과 不可侵條約 을 締結하고 國際聯盟에 加入(1934年)하는 한편 日·獨·伊의 同盟構築에 對備하여 이를 包圍할 集團安全保障體制의 構想을 企圖 하였으나 英·仏 등의 對蘇 不信으로 失敗하였다. 當時 「유럽」에서 는 英·仏·獨·伊·蘇 등 各國의 外交官의 往來가 頻繁하여 交涉과 謀略이 行하여졌으나 그것을 支配하고 있던것은 相互不信과 時期였다. 그리하여 各國의 外交官이 政勢判斷에 있어서 많은 잘못을 범하였다.

1938年 「나치」는 「오스트리아」를 併呑하고 「체코」를 侵入 하였다. 同年 10月 英·仏·獨·伊의 사이에 「뮌헨」協定이 成立 하였으나 蘇聯은 招請되지 않았다. 英·仏은 「나치」를 蘇聯과 正面對決시킬려고 劃策하였다.

라. 對獨逸 接近期(1939~40年)

「뮌헨」協定은 蘇聯의 外交政策轉換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1939年 5月 「모르토프」가 「리도비노프」에 대신하여 外務人民委員이 되고 「스타린」自身은 首相이 되어 印전태세를 가추었다.

「모르토프」는 可及的 戰爭發生을 抑制 乃至 遲延시키는 한편 이를 局地化하는데 努力하였다. 또한 獨逸에 接近하여 1939年 4月 獨逸과 通商協定,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日本과도 같은 해에 中立條約을 締結하였다.

1939年 9月 「나치」軍은 「폴랜드」에 侵入하였다. 蘇聯은 全

「폴란드」가 「나치」의 手中에 들어가는것을 阻止하기 위해 軍隊를 出動시켜 獨逸과의 「폴란드」分割을 합의하고 이어 「핀란드」에 侵攻하여 「카렐리아」를 奪取, 그 다음해에는 「발틱」3國을 併合하여 上記諸國이 「나치」의 蘇聯進擊基地化하는것을 事前에 防止하였다.

다. 第2次 世界大戰期 (1941~45年)

(1) 美·英·蘇 聯合密月期 (1941年~42)

1941. 6. 22 「나치」軍은 이태리, 「루마니아」兩軍과 함께 蘇聯을 侵攻하였다. 當時 自由世界에서는 「나치」軍의 戰壕戰의 勝利와 「소비에트」政權의 崩壞를 豫言하는 소리와 蘇聯은 勝利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지지는 않는다. 戰爭은 長期化한다는 등의 見解가 兩立하였으나 後者の 觀測이 거의 的中하였다. 「나치」軍 敗戰의 原因은 비행기, 연료, 兵力등의 不足과 世界를 敵으로 만들었던 때문이었다.

「모르토프」는 즉시 蘇聯軍에 反擊을 命하였고 7月3日에 이르러 「스타린」은 戰爭目的을 祖國의 防衛, 「나치」의 侵略과 破壞로부터 民主主義와 「유럽」文明을 守護한다는데 있음을 宣言하고 善戰하였으나 開戰3個月만에 「나치」軍은 「모스크바」까지 肉迫하였다. 그러나 多幸히 冬將軍의 德分으로 「모스크바」는 「나치」軍의 蹂躪으로부터 防衛되었다.

이때 全歐洲가 「히틀러」의 支配下에 들어 가는것을 두려워한 美國과 英國은 民主主義와 自由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蘇聯에 救援의 손을 뻗쳐 1942年5月 英·蘇軍事同盟이 締結되고 이어서 美·蘇防衛物資供與協定이 締結되었다. 蘇聯은 「獨逸」과의 戰爭을 구실로하여 東歐에 共產圈을 擴大하게되어 結局 美國과 英國은 獨逸의 侵略은 防止할 수 있었으나 共產主義의 膨脹을 조장한 役割을

한 셈이 되었다.

이 期間에 東亞細亞에 있어서는 支那事變이 大東亞戰爭으로 發展하고 또다시 第2次世界大戰으로 突入하였다.

獨. 蘇戰爭은 3年째를 맞이하게 되었고 美. 英. 蘇의 聯合은 日床異夢의 意味를 갖기는 했으나 別問題없이 繼續되었다.

## (2) 聯合破綻期(1943~45年)

1942年부터 43년에 걸친 冬期の 「스타린그라드」 戰爭은 蘇聯軍의 大勝利로 끝나게 되었으나 이때부터 美. 英. 蘇聯合은 귀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美國과 英國側은 蘇聯軍이 「나치」 軍을 國境外로 擊退한後 「히틀러」와 单独講和를 하지않을까 또한 「유럽」을 共產化하지 않을까 하는 疑心을 품는反面 蘇側은 美國과 英國이 「히틀러」와 单独講和를 하고 「유럽」의 反動勢力을 總結集하여 反蘇戰線을 結成하지나 않을까 疑心을 하게 되었다. 聯合의 귀열은 美. 英對 蘇聯間에만 생긴것이 아니라 美. 英間에도 생겼다. 그리하여 3國은 「모스크바」, 「테헤란」, 「알타」, 「포스담」等地에서 會議를 열고 意見調整을 企圖하였다. 會議에서 取扱한 問題中에는 勝利할때까지의 戰爭의 繼續, 单独講和의 禁止, 第2戰線의 開設, 戰後의 安全保障機構, 東歐問題, 對日戰問題, 敗戰國의 處理, 解放諸國의 處理問題등이 包含되어 있었으나 어느것이나 相互間의 不信과 時期때문에 意見調整은 極히 固難한 狀態였다. 第2戰線開設問題에 對해서는 「처칠」과 「스타린」間에 交涉이 行하여져 相互의 不信과 時期가 더욱 表面化되었다. 또한 「테헤란」會議(1943.11)에서 「스타린」은 蘇聯의 對日戰參加를 要求하는 「루즈벨트」의 提議를 받아들였다. 「나치」 軍의 敗戰이 거의 確實하여졌을때 「히틀러」는 美國과 英國에 對하여 反共戰線을 提議했으나 「스타린」은 「코민테른」의 解体(1943年4月), 宗教壓迫緩和등을 들어 美國과 英國側의 共產運動에 對한 疑酷의 解消에 努力하였다. 이런것을 절충한 장본인도 「모르토프」로서 그때부터 「모르토프」 外交의 名성이 떨치게 되었다.

한편으로 戰局은 소련軍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소聯의 戰事는 국경을 넘어 西進을 계속하여 1945年 5月 2日 「베르린」에 入城하였다. 南方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진주하였으며 5月 7日에는 드디어 독일이 항복하였다.

東亞細亞에 있어서는 8月 8日 소聯은 日. 소中立條約을 파기하고 日本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 軍隊를 만주국, 남樺太, 千島烈島에 진격시켰다. 만주에서만도 50萬의 日本將兵 및 日本人 거주자를 連行하였으며 6兆圓에 달하는 日本人 財産을 몰수하고 11年이라는 긴 세월을 이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

9月 2日 日本도 연합국과 無條件 항복을 조인하므로써 「파시즘」과 民主主義의 戰爭이었던 第2次 世界大戰은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새로운 世界질서의 上位에는 美國과 소聯이 서게되고 國際政治는 이 2國을 中心으로하여 展開되게 되었다. 戰爭으로부터 탈피한 蘇聯은 世界의 大國으로서 등장하였으며 또한 戰爭의 종결은 美, 英, 蘇聯승의 事實上 終結이기도 하였다.

### (3) 「스타린」과 戰后處理 問題

戰后處理問題에 있어서 「스타린」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問題는 어떻게 하여 自國의 安全을 保障하느냐는 것이었다. 十月革命時期부터 資本主義와 反소運動의 위협에 直面하여 왔으며 「히틀러」에 의하여 大攻勢를 받았던 「스타린」이 自國의 安保를 至上命令으로 한것은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領土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스타린」은 독일 및 日本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을 除去하는 것을 大原으로 삼았다. 1944年 10月 「처칠」에게 要求하여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를 自國의 影響下에 넣고 「유고」를 英國과 2分한것.

「펜랜드」로부터 軍事基地를 조차한 것등은 독일에 대하여 西部国境線을 確保하려는 것이었으며 對日戰 參加條件으로서 日本으로부터 南樺太, 千島를 탈취할것을 美國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동방 国境의 安全을 保障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1945年8月の 中蘇友好條約, 1950年2月の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도 日本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敗戰國의 処理에 對해서는 美·英案에 反對하여 敗戰國이 民主主義的 平和受好國으로서 再生할수있게 할것을 強力히 主張하고 그 基本方針을 認定하였던 「포스담」선언 준수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戰后 安全保障機構로서의 國際聯合의 組織에 對해서도 当初부터 커다란 関心을 集中하여 「소비에트」聯邦을 構成하는 各 共和國에도 外交權을 부여 하므로써 國聯에 있어서의 票의 確保에 努力하는 한편 安保理事會에 있어서 거부권제도 창설에도 積極的인 發言을 하였다.

「스타린」은 「指導的 位置에 있는 3國間의 協調가 장래의 平和를 保障할수 있다」고 하여 美·英·蘇 3國聯合을 戰后에도 維持하고 東西貿易의 擴大도 主張하였다. 그는 이와같은 作業에 依하여 反蘇聯合의 結成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당시 「스타린」의 意中에는 旧「로시아」의 大國主義理念이 다시 떠올랐던 것이다. 領土擴張이 그의 胸理를 占하였고 世界革命運動에는 그다지 熱意가 없었다. 1942年「유고」의 「티토」 임시정권 건설에 반대 한것과 美國에 對해 장개석 정권 이외의 정권을 승인할 의사가 없음을 保障해주고 한편으로는 終戰直前國府와의 사이에 友好同盟條約을 締結하여 滿州철도의 공동관리 旅順港의 共同使用, 新강성에 있어서의 합판회사건설을 약속한것등에서 볼수 있는 바와같이 革命運動보다도 領土擴張에 커다란 関心을 보였

던 것이다. 「스타린」은 「알타」會談에서 地中海進出을 기도하고 對日戰終結 후에는 「터키」와의 國境에 軍隊를 集結하는 한편 「그리시아」, 「이란」등에도 손을 뻗었으나 英國・美國 등의 強力한 항의에 부딪쳐 좌절되었다.

#### 바. 國際緊張期 (1946 ~ 52年)

第2次世界大戰中 「처칠」과 함께 世界的 指導者로 군림하였던 「루스벨트」는 戰爭의 終結을 눈앞에 두고 급서하였다.

(1945年4月) 그리하여 「트루만」大統領이 새로이 취임하였다. 「루스벨트」의 죽음은 그의 世界政策, 即 美・蘇 협조에 의한 平和維持政策의 終結의 意味하는 것이었으며 「트루만」의 登場은 蘇聯과의 決別, 冷戰時代의 到來를 豫見케 하였다.

앞에서 말한 「스타린」의 領土擴張은 自國의 安全保障을 爲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共產主義의 擴張이었던 것은 말할 必要도 없었으며 따라서 自由世界支配者의 눈에는 赤色帝國의 위협으로 받아 두려지고 공포・증오・불신을 더욱 깊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美國에 있어서는 反蘇運動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드디어는 1947年3月 「트루만 독트린」이 선언되어 冷戰은 第1步를 내딛게 되었다. 이어서 同年 6月에는 「마샬・프랜」이 發表되고 「버틀」法案이 制定되어 對共產國 禁輸措置가 實施되었다. 1949年 4月에는 北大西洋條約機構가 結成되어 蘇聯包圍網의 一環이 구축되고 이에앞서 1948年에 「유럽」에서는 「브르셀」條約이 加入되었다. 1949年 9月의 原子爆彈保有에 關한 蘇聯政府의 聲明은 美國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應하여 「트루만」大統領은 水素爆彈製造를 禁하는등 冷戰은 더욱 심각화 하였다.

이 當時 東歐諸國 및 東亞細亞 2, 3個國에서는 蘇聯軍의 힘에

의 하여, 혹은 단독으로 人民民主主義國家가 建設되어 蘇聯을 先頭로 하는 世界社會主義體制가 出現하였다. 1947年 봄 처음으로 사용된 冷戰이라는 用語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對立을 意味하였고 2개의 「이데오르기」의 思想戰, 國際的 規模의 계급鬭爭을 內容으로 하였다. 이 冷戰은 革命期의 파괴력에 대한 공포때문에 戰爭으로까지는 發展되지 않았으나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狀態가 繼續되는 것이었다.

「스타린」은 同 美國의 冷戰政策에 대해 東歐社會主義諸國의 團結을 強化 戰爭의 防止라는 2가지 方法으로 對決하였다. 또한 「코민포름」結成(1947年 10月)하고 「코메콘」을 組織(1949年 1月)하여 世界平和를 愛好하는 運動을 폭넓게 展開하였다. 한편으로는 NATO의 分열과 勢力팽창을 防止하고 美國과의 共存의 可能性과 交涉用意가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트루만」은 態度를 變更하지 않았다. 그러나 世界平和를 지키는 運動은 폭넓게 世界知識人의 지지를 얻어 이들 知識人이 그후 世界의 커다란 政治勢力으로 成長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冷戰政策이 最初로 나타 난것은 독일의 「베르린」問題와 韓國動亂에서였다. 「베르린」問題에서는 美·英·仏 3國의 西獨, 西 「베르린」의 通貨改革에 對하여 蘇聯은 東獨政權의 樹立, 경제선 봉쇄(1948年 6月~49年 5月)로서 對應하여 「베르린」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韓國動亂은 本質的으로는 美·蘇의 冷戰에 의하여 發生한 것이었다.

이러한 情勢속에서 「마렌코프」는 1953年 8月 蘇聯의 水爆保有聲明을 發하였다. 蘇聯의 水爆保有는 美國이 水爆에 의하여 對蘇韓 優位를 確保해 오던것을 하루 아침에 붕괴시켜버리는 결

파가 되었다. 美國의 對蘇軍事優位の 弱化는 美國으로 하여금 더욱더 對蘇포위망 強化를 서둘르게하여 日本과 독일의 再武裝, 「안저스」條約, 韓美, 美比, 美台相互防衛條約, SEATO, NATO 등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걸쳐 蘇聯을 포위하는 美國의 軍事基地가 擴張되어 「필레스」의 對蘇「롤백」政策제창등과 함께 冷戰은 더욱 度を 더해갔다.

그러나 이와같은 西方側의 힘의 政策에 對해 힘만으로 對抗하는 것은 蘇聯側에 不利할 뿐이었기 때문에 「스타린」의 晩년에는 党内에서 戰爭을 防止하기 爲하여 外交政策을 점차 轉換하여야 한다는 空氣가 서서히 造成되었다.

사. 平和共存提唱期 (1953 ~ 61年)

(1) 「마렌코프」의 對話外交 (1953 ~ 54年)

「스타린」의 죽음은 蘇聯政治의 전모를 크게 變化시켰으며 이는 外交政策에도 나타났다. 即 國內의 緩和政策을 배경으로 對話外交에도 方向이 轉換되어 「스타린」外交의 溫厚함과 冷酷함이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 이는 韓國戰의 休戰, 「인도네시아」休戰 (1954年) 등에서도 볼수있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周恩來 및 「네루」와의 사이에 平和五原則이 宣稱되어 이것이 社會主義諸國과 中立諸國과의 關係를 規定하는 基本原則이 되었다. 이에따라 平和에의 希望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東西貿易이 活潑化하여 「트루만」의 對蘇 經濟封鎖는 英國이 1954年4月 對蘇 「코코」輸出制限을 철폐하므로써 점차 붕괴되었다. 特히 韓國動亂의 休戰과 「인도지나」休戰은 「마렌코프」의 對話外交의 하나의 結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側은 冷戰外交를 繼續하여 「필레스」의 大量報復戰略



( 1954年1月 ) , SEATO結成( 同年9月 ) , 西獨의 주권 회복과 NATO加盟을承認하는 「파리」協定の調印( 同年10月 ) 등에 의하여 對蘇包圍戰略을 더욱 확고히 하여갔다.

當時 「크레믈린」에서는 3頭政治가 행하여져 外交는 全部「모로토프」가 담당하고 있었다. 「모로토프」는 美國의 冷戰政策에 對하여 社會主義諸國의 強化와 단결, 世界平和守護運動의 展開, 저개발國의 中立政策 이동 등으로 이에 對処하였다. 「펠레스」의 大量報復戰略에 對하여서는 大量殺生兵器禁止를 제안하고 「스톡홀름」회의등 世界平和를 위한 國際會議를 개최하여 緊張緩和에 努力하는 한편 社會主義諸國에 對하여서도 經濟, 技術援助를 提供하였다.

1954年부터는 「인도지나」를 비롯한 低開發國에 對하여 經濟, 技術援助를 提供하여 背後로 부터의 帝國主義의 約体化, 美國의 對蘇 包圍網의 붕괴를 피하였다.

低開發國 援助에 있어서 「스타린」은 蘇聯의 經濟力를 考慮하여 인도등 資本主義支配로부터 民族「부르조아」의 指導에 依하여 獨立한 國家에 對하여는 이를 帝國主義 國家로 看做하고 援助를 행하지 않았으나 「스타린」死後는 蘇聯의 經濟力이 向上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스타린」의 理論을 否定하고 低開發國의 中立政策을 利用하는 方向으로 援助를 행하였다.

## (2)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外交( 1955~1961年 )

이 當時 「크레믈린」內部에서는 「후르시초프」와 「마렌코프」의 權力鬭爭이 激甚하였으나 「마렌코프」가 패배하여 1955年 2月 「마렌코프」가 失脚함에 따라 外交도 「모로토프」로부터 「후르시초프」의 손으로 넘어갔다.

「후르시초프」도 對話의 外交를 強力히 推進하였다. 이지음

「유럽」에서는 冷戰外交에 지쳐 東西의 交渉을 要求하는 輿論이 높아졌으며 「처칠」까지도 巨頭會談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는 「스카루노」 印尼 大統領에 依하여 「방동」會議가 열리고 平和10原則을 採択(1955年4月)하기에 이르렀으며 UN에서는 亞阿諸國의 發言權이 強化되는 一方 世界平和를 守護하는 運動은 하나의 政治的 勢力으로 까지 成長하였다. 이러한 情勢에 따라 美國도 世界輿論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후르시초프」는 이와같은 機會를 재빨리 포착하였다.

1956年2月 蘇聯共產黨 20次大會에서 「후르시초프」는 國際情勢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 資本主義體制의 矛盾 격화, 勞動者계급의 鬪爭 첨예화, 社會主義體制의 影響力 增大, 平和를 守護하는 運動의 政治勢力化, 식민지 體制의 붕괴에 의하여 兩體制間의 平和共存과 平和革命은 可能하게 되었다. — 이와같은 分析의 옳고 그름은 海外로 하더라도 이 分析과 結論은 그대로 「후르시초프」外交의 理論的 基礎가 된 것이다.

그후 2次에 걸친 黨大會에서 이와같은 理論的 基礎는 더욱 發展되어 資本主義의 全般的 위기는 第3段에 들어서고 있으며, 世界帝國主義體制는 심각한 矛盾에 의하여 귀멸되고 있다. 世界社會主義體制는 確立되고 있으며 今日의 世界發展의 主要한 要因이 되는 것은 社會主義이다. 民族解放運動의 展開下에 식민주의 體制는 事實上 붕괴되었다는 등으로 修正되고 있다.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外交는 前記分析에서 보이는 國際情勢에 適應하기 위한 것으로 資本主義와의 對決을 15~20年 뒤로 미루려는 것이었다. 20年 后라하는 것은 당이 共產主義建設 20個年計劃을 끝냄으로서 共產主義 基盤이 鞏固화하는 데인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社會主義 體制의 生産方法은 資本主義 體制의

生産方法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社會主義 帝國에 대한 經濟共同體를 育成하고 확고히 하여 經濟的 競爭에서 勝利한다면 共產主義에 對한 勞動者階級의 매력은 더욱 높아져 戰爭에 의하지 않고서는 世界의 共產化는 達成될수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15~20年의 期間이 소유되며 그동안에는 現상유지, 國際緊張의 회피, 戰爭의 防止等을 爲해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을 비롯한 自由世界各國은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 政策을 의혹과 불안한 눈으로 바라 보았으며 특히 「델레스」는 戰略空軍의 優位에 의하여 戰爭을 미리 防止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아이젠하오」는 中東教書를 發表하여 同地域에 對한 共產主義의 위협에 武力을 使用하여 이에 對處한다고 聲明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의 低開發國 援助에 對抗하여 1957年에는 開發供與基金을 創設하고 60年에는 9個國 開發援助 「그룸」을 발족시키는등 低開發國을 둘러싼 美·蘇의 對立은 심각하여갔다.

이와같은 美國의 政策에 對하여 「후르시초프」는 平和共存政策은 繼續 보고 나갔으며 冷戰해소, 東亞交流의 推進, 軍事「브릭」의 解消, 東西交流推進, 集團安全保障, 軍축問題등을 들고나와 이에 맞섰다.

또한 「스타린」時代에는 없었던 招請外交, 訪問外交, 文化外交, 經濟外交등 새로운 形態로서 積極的인 攻勢를 展開하였다.

「후르시초프」는 首腦個人間의 接觸을 무엇보다도 主要視하였다.

이와같이 平和共存外交를 展開하는 가운데에서도 國際政治는 힘이 支配한다는 原理에 立脚하여 1955年 5月에는 「와르샤와」條約機構를 만들어 NATO對備하고 9月에는 西獨과 外交的 交涉을 開始 다음해인 56年 10月에는 日·蘇 共同宣言에 調印하였다.

「와르샤와」 條約機構의 成立은 「유럽」을 名実共に 2 個로 分離시켰으나 이지음 冷戰解消의 國際與論은 더욱 높아져 結局 1955年 7月 「백미란」의 앞선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美, 共, 仏, 蘇 四巨頭會談이 行하여졌다. 同會談에서는 獨逸問題, 「유럽」 安全保障 軍縮, 東西交流의 4 個問題가 討議되었으나 意見調整은 不可能하였다 그러나 소위 「제네바」 精神이 등장하여 原水爆時代에는 平和共存 外에 다른 方途는 없다는것, 相互戰爭意思는 없다는것을 은연중에 이해한것은 國際緊張의 해빙징후로서 환영되었다.

巨頭會談의 結果로 「아이젠하워」 大統領에 對한 「후르시초프」의 신뢰감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리하여 1957年 12月에는 ICBM 保有를 背景으로 中部 「유럽」의 非核武裝設置, NATO와 「와르샤와」 條約機構間의 不可侵條約締結, 貿易制限撤廢等을 議題로하는 首腦會談 開催를 提案하고 58年 7月에는 「유럽」 諸國과의 友好協力條約調印을 提議하는等 國際政治舞臺에 있어서 「후르시초프」는 緊張緩化, 평화공존외교의 主役으로 活動하였다.

이와 매를 같이하여 文化外交도 強力히 推進하여 各國과의 사이에 文化協定이 調印되었으며 美國과의 사이에도 美, 蘇文化, 技術 教育協定이 調印( 58年 1月) 되었다.

「후르시초프」, 「블가닌」 兩「콤비」는 1955年 11月 東南亞諸國 訪問後 56年 4月에는 「런던」을 訪問하고 이어 59年 5月에는 美國을 訪問하였다.

1957年부터는 訪問外交, 招請外交는 하나의 流行으로 된것같은 감이 들었다. 蘇聯要人の 自由世界訪問, 自由世界の 政治家, 저개발 國家의 首腦가 「모스크바」訪問이 盛行하고 會談後의 共同「코뮤뉴

케」발표가 하나의 國際慣習이 되었다.

많은 우회곡절을 거쳐 1960年5月 「파리」에서 4個國巨頭會談이 開催되기로 豫定되었으나 「후르시초프」가 U-2機事件을 가지고 「쇼」를 하였기 때문에 流産되고 말았다.

「후르시초프」는 「케네디」新美國大統領에게 美·蘇關係의 改善을 기대하였으나 1961年6月의 兩者의 「빈」會談은 相互見解差異때문에 失望感만 깊게하고 끝났다.

「후르시초프」는 1959年 및 60年의 UN總會에 出席하여 完全軍縮, 植民地 制度의 解消등을 提議하였다.

「후르시초프」가 이와같은 旅行이나 首腦會談에서 繼續하여 變함없이 主張하고 宣傳한것은 平和共存이었다. 그리하여 平和共存이라고 하는 用語는 今日的 世界에까지 넓게 퍼지게하고 自由世界政治家의 口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東西對立의 커다란 焦點의 하나였던 「베르린」問題에 對해서는 同問題는 東西獨의 統一問題, 西方諸國의 東獨承認, 國境問題, 交通問題等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가 얽혀 解結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중에 하나는 蘇聯이 西獨의 再武裝을 우려하고 獨逸軍國主義復活에 去大한 關心과 神經을 集中하였다는것도 들 수 있다.

中近東도 또한 東西對立의 場所였다. 蘇聯은 여기에서 美國의 大小 포위망을 붕괴하려고 했다. 1955年 가을 체코로 하여금 에집트, 시리아등에 무기를 供給하고, 또한 經濟, 技術원조를 주었으며, 익년, 56年 6月에는 外相 「세베로프」가 카이로, 레바논, 아테네를 訪問하였다. 蘇聯의 中近東進出에 對해서 美國의 「아이젠하워」는 中東交畚를 發表하며 對항하였다. 1956年10月의 스에즈

은하 동맹에는 의용군을 보내는등 동조했다. 모스크바는 또한 이러한 地域의 石油에 関心을 가지고, 또한 에집트를 아프리카 進出의 발판으로 삼아 重要시하게 되었다.

中立地域은 「후르시초프」外交의 일익을 担当하였다. 「후르시초프」「불가닌」 콤비는 1955年 11월에 「인도」「버마」「아프가니스탄」을 1960年 2月에는 「후르시초프」 혼자서 「인도」「인도네시아」를 訪問하고, 經濟, 技術, 文化援助를 약속하였으며, 이러한 諸國이 西方側의 軍事블럭에 加入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한 諸國主義를 弱化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低開發國에 대한 經濟, 技術援助에는 背後에 諸國主義를 弱化시키는 蘇聯外交의 有力한 힘이 뻗었다. 蘇聯의 援助는 製鉄, 發電 其他工業企業建設이 主로서, 오늘날까지 아시아, 아프리카諸國에 대한 援助는, 蘇聯側 發表에 의하면 480企業에 달하고 있다. 最近 武器援助가 많아졌다고 하나, 低開發諸國에 있어서의 支配階級은 民族부르조아로 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 당국이 기대한 것과같은 効果는 不可能하다.

世界共產主義運動의 關点으로는, 反諸國主義鬭爭, 특히 美國의 獨點資本과의 鬭爭을 宣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諸國主義를 弱化하는 限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도를 지나서 世界의 健全유지를 문란하게하고 結局, 蘇聯을 위시한 社會主義諸國에 影響을 미치는 境遇에는 抑制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美國의 民族解放運動에 있어서는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 아. 現代蘇聯外交

「브레즈네프」, 「코시킨」의 新政權은 第 20 회와 第 22 회 黨大會에서 決定된 外交路線, 卽 ① 世界社會主義體制의 強化 ②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의 勞動運動의 支持, ③ 世界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의 強化 ④ 民族解放鬪爭의 支援 ⑤ 平和共存原則의 推進 등을 不動의 歸線으로 하고, 이것을 答습할 것을 재빨리 宣稱했다. 특히 64年 10月 19日의 「브레즈네프」演說은 平和共存이야말로 現代에 있어서 唯一한 現性的 政策이라고 했는데 現在의 情勢下에서는 蘇聯이 取하여야 할 對資本主義諸國 外交政策의 基調는, 「후르시초프」의 存否와는 關係없이 平和共存政策 以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新政權이 「후르시초프」路線을 答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르시초프」時代에 決定된 路線이라는 것이지, 「후르시초프」가 實施한 路線 自体를 意味하는 것은 아님을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후르시초프」時代에 前記의 5個 蘇聯外交基本原則이 決定되었는데, 「후르시초프」는 특히 「큐바」事件以後에는, 黨綱領이 定하는 「美·蘇共存」을 더욱 推進시켜, 「美蘇協調」를 追求하는데 급한 나머지 기타 4個原則을 가볍게 보았다. 따라서 新政權은 「후르시초프」時代에 脫線한 蘇聯外交를 黨의 路線으로 (그중에서도 「美蘇協調」에서 「美·蘇共存」으로)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

新政權은 우선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 強化에 精力的인 活動을 開始했다. 「후르시초프」退陣에 對해서 東歐의 대부분의 黨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겠지만 反撥의 態度를 보이고 「후르시초프」

退陣의 理由내지 經過에 關해 說明을 要求했다. 그러나 이러한 東歐諸國의 黨의 態度는 은퇴하는 「후르시초프」에 同情을 보였다기 보다는 「후르시초프」를 追放한 新政權의 東歐政策이 보다 硬化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危懼를 나타낸 것이었는데, 新指導者의 說明을 듣고 이를 承認했으며, 이 問題를 둘러싼 波紋을 收拾했다. 新政權의 東歐諸國에 對한 態度는 그 團結을 도모하지만, 그를 爲해 強權을 發動하여 反撥을 사는 것을 피하고, 「世界社會主義體制」는 아직 걸기 때문에 이들 諸國과의 關係에는 最大의 注意가 必要하다. 事態를 破壞하지 않고 또 蘇聯에 對한 不信을 招來하지 않도록 最大의 忍耐과 慎重을 發揮하고, 完全한 信賴와 完全한 自發的 同意를 基礎로 하는 것이 重要하다. (콤니스트誌)는 慎重한 態度이다. 例를 들면 「폴란드」에 對한 「후르시초프」退陣의 理由說明에 際해서는, 64年 10月末, 「브레즈네프」「코시킨」兩者가 蘇聯國境에 가까운 「폴란드」領內까지 일부러 갔다고 하는 慎重한 態度였다.

社會主義諸國間의 關係에 對해서 「브레즈네프」는 다음과 같이 言明하고 있다. 「우리들의 時代에 있어서, 平和와 社會進歩의 爲 「우리들의 時代에 있어서, 平和와 社會進歩의 爲」은 점차 모든 反帝勢力의 結集, 우선 첫째로 社會主義諸國, 世界共產運動의 團結에 달려있다. 우리 黨은 完全한 平等을 基礎로하고, 社會主義共同體의 共通의 利益과 各國民利益의 올바른 組合, 平和와 社會主義擁護를 爲한 共同의 鬪爭에 있어서의 社會主義諸國間의 全面的 協力の 發展을 基礎로 한 社會主義友邦의 大同團結의 實現을 圖謀할 것이다.」(64年 10月 19日의 「모스크바」에서의 宇宙飛行士觀過集會에서의 인사)



「世界社会主義体制은 自由롭고 平等한 諸國民의 社会的 經濟的, 政治的 共同体이다. ……………社会主義諸國民은 共通의 基本的 利益에 의해 統一되어 있다. 우리는 生産手段의 社会的 所有라는 同一한 形態의 經濟的 土台를 가지고 있으며, 勞動階級을 先頭로 하는 人民의 權力이라고 하는 同一한 形態의 國家制度를 가지고 있고, 「마르크스, 레닌」主義라고 하는 單一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安全을 確保하고, 平和와 諸國民의 安全을 守護하며, 帝國主義의 侵略으로부터 革命의 獲得物을 守護할 것을 共通의 利益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共產主義라고 하는 하나의 偉大한 目的을 가지고 있다. ……………어느 一黨, 어느 一國의 經驗을 他黨과 他國에 강요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社会主義建設에 어떤 方法, 어떤 形態를 選擇할 것인가는 자기 自己 國民의 主權에 屬하는 것이다. (64年 11月 6日) 「크렘린」大會宮殿에서의 革命記念演說)

이렇게 新政權은 社会主義諸國의 平等과 自主性을 公約하고, 強權에 의해서만 아니고 自發的 立場에서의 社会主義諸國共同體의 團結強化를 圖謀하고, 그것에 의하여 「후르시초프」시대에 弛緩된 상태로 긴장시키려 했다. 65年 1月 19日 「와르샤와」에서 開催된 「와르샤와」條約機構政治諮問會議에서 「社会主義共同體가 完全히 一體이며, 連帶되어 있음을 聲明한 것을 비롯하여 65年을 通해서 東歐諸國과의 사이에 頻繁한 黨·政府代表團의 訪問을 交換해서 關係의 緊密化를 圖謀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66年 5月부터 6月에 걸쳐서 蘇聯의 「와르샤와」條約機構의 強化構想에 對한 「루마니아」의 反撥에 상징되는 바와 같이, 東歐의 對蘇自主化의 경향은

그 限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점차 強해져 갔다.

## (2) 民族解放鬭爭의 支援

「후르시초프」가 民族解放鬭爭의 支援을 능한히 했던것에 對해서 新政權은 이것에 積極的인 態度를 取했다. 新政權發足後 얼마 되지않은 1月 22日, 蘇聯은 「콩고」問題에 關해서 「蘇聯은 「콩고」에 있어서의 干涉者의 行動을 단호히 非難하고 「아프리카」中部에 發生한 危險한 緊張의 情勢를 끄고자 하는 「아프리카」諸國民을 熱烈히 支持한다고 하는 「타스」聲明을 發表하고, 1月 25日, 「벨기에」英國 및 美國政府 앞으로 「武力에 依한 「스탄빌」奪取는, 「콩고」國民에 對한 橫暴와 強制政策을 繼續하고 있는 「벨기에」, 美國 및 英國側에 의해 遂行되고 있는 武力干涉이라는 새로운 暴行이다」고 하고, 軍事干涉의 即時停止와 「벨기에」軍隊 및 外國傭兵의 撤退를 強力히 要求하는 政府聲明을 發表했으며, 또 「콩고」(「브라자빌」)에 對해서 秘密히 武器援助를 行하는等 強硬한 態度를 보였다. 또 「베트남」問題에 關해서도 11月 27日 「蘇聯은 형제적 社會主義國의 運命에 無關心할 수 없으며, 이에 必要한 援助를 提供할 用意가 있다」고 하는 「타스」聲明을 發表하여, 同年 8月의 「통킹」만 事件에 關한 「타스」聲明과는 아주 다른 強硬態度를 보았고, 그후 實際로 越盟에 經濟, 軍事援助를 供與했다.

第2回 AA會議에 對한 「후르시초프」와 現政權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態度變化도 상당히 明瞭하다. 64年 5月 蘇聯政府 聲明은 「領土의 2/3가 亞細亞大陸에 있는 蘇聯과 같은 歐亞大國의 國會會議에의 參加가 問題된 것은 當然하다」고 말하고 그後 印尼 아랍聯合等에 蘇聯參加를 容許했지만 同年 8月에는 「蘇聯은 스스로 參加問題를 提起한 것이 아니고, 蘇聯을 席上에 맞아 들일 것을 원한 나라가 이것을 提起한 것이다. 蘇聯政府는 參加를 義務的

인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도 이 생각을 일층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政府声明을 내고, 參加를 強行할 意思가 없음을 表明했을 程度이다. 이에 對해서 現政權은 64年末 以來 AA 各國에 對해서 蘇聯參加支援 要請을 強力하게 展開하고, 「AA 會議에 蘇聯의 國際的인 權威가 부가된다면 의심할 餘지없이 參加者들의 힘을 增加시켜, 會議가 當面한 問題를 容易하게 할 것이다 (65年5月28日 新時代誌 22號)고 하여, AA 諸國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增大를 爲해 積極的인 姿勢를 나타냈다. 65年12月의 最高會議에서 「그로미코」外相은 要旨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第2 AA會議의 準備는 帝國主義列強의 侵略增大, 他國內政에 對한 干涉, 民族解放鬪爭抑壓의 情勢로 遂行되었다. 蘇聯政府는 AA會議의 意思 및 그 意義를 積極的으로 支援하고, 蘇聯은 會議에 參加하여 그 成功을 全面的으로 促進할 用意가 있음을 聲明했다. 外相會議에서 蘇聯의 會議參加問題는 肯定的으로 取扱되었다. 外相會議의 延期를 發表했다. 蘇聯政府는 이 決定을 理解하고 받아들인다.」 新政權이 民族解放鬪爭을 積極化했지만, 거기에는 스스로 限度가 있음을 말할 必要도 없다. 民族解放鬪爭의 支援은 本末 平和共存과는 矛盾되는 것이고 兩者의 矛盾은 「平和의 確保」라고하는 蘇聯外交政策의 基本目的에 依해 解決이 圖謀되게된다. 即 黨綱領에 依하면 蘇聯外交政策의 基本目的은 「蘇聯에 있어서의 共產主義社會의 建設과 世界社會主義體制의 發展을 爲해 平和로운 條件을 保障하고, 또 人類를 世界織滅戰爭에서 구하는 것이다」고 規定되어 있으며, 民族解放鬪爭을 積極的으로 支援한다고 해도, 그 結果, 世界戰爭을 가져와서는, 全體의 破壞가 일어날 것이므로 全面戰爭을 가져오지 않는 範圍內에 限定하는 것은 當然하다. 다만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후르시초프」가, 「局地戰爭은 容易하게 全面戰爭으로 發展할 수 있기때문에 그 防止를 爲해 鬪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強調한데 對해서 現政權이, 現在「베트남」戰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全面鬪爭으로 發展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局地戰爭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平和共存原則의 推進

平和共存政策은, 蘇聯에 있어서는 「후루시초프」의 存在에 關係없이, 資本主義諸國과의 關係를 規定하는 「唯一의 現狀의 政策」 (「브레즈네프」의 말)이다.

64年 11月6日의 「브레즈네프」演說은 「우리는 主要資本主義諸國과의 實務的 接觸의 發展 및 諸關係의 發展을 重要視하고 있다.

英國, 이태리, 西獨, 日本 其他國과의 關係를 일층 發展시킬 可能性은 의심 할 여지없이 存在하고 있다」고 말하고 美·蘇 關係에 關係해서는 「蘇聯은 蘇·美 關係를 發展시켜서, 兩國民의 利益을 圖謀하고 平和의 強化에 앞장설 用意가 있다」고 했으며, 더우기 美國大統領 選舉에 있어서의 民主黨의 勝利를 美國國民의 平和意圖를 나타낸 것이라고 歡迎했다. 65年 1月 「존슨」美大統領은 年頭 敎書에서 「새로운 蘇聯의 指導者들이 美國을 訪問하여 우리나라를 直接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1月31日

「프라우다」는 「美大統領의 聲明은 蘇聯에서 積極的인 反應을 얻었다. 蘇·美政治家의 接觸은 重要問題에 對한 意見交換의 機會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美·蘇首腦會議 實現의 本能性을 示唆했다.

그런데 2月7日의 美國의 北爆은 美·蘇 關係를 漸次 惡化시켰다. 2月9日의 蘇聯政府聲明은, 美國의 北爆에 분노와 警告를 表示했는데 「美·蘇 關係」의 視野에 서서는 「蘇聯은 美國과의 正當的인 關係確立을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侵略政策과 美·蘇關係의 改善은 兩立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여 아직 유연한 態度였다.

이어서 3月4日의 美國에 對한 聲明에서는, 「北爆은 平和共存의 原則을 破壞한다」고 警告하고, 더우기 65年 5月의 對獨戰爭 20 周年記念集會에서 「브레즈네프」는 「美國의 支配階層은 어떠한 根

據에서인지 他國民에 對한 最高裁判官과 같은 役割을 마치 자기의 役割인양 하고 있다. 그들은 UN憲章에도, 其他 國際文書에도 規定되어 있는 엄숙한 義務를 破壞하고 있다. 이것은 暴力과 專橫의 政策이며 侵略의 政策이다」고 극렬히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上記 「브레즈네프」演說은 「美國의 支配層」이라 하고, 「美帝國主義者」라고 하지 않은 點을 注目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65年 9月の 党中央委總會는 新政權의 治政 만 1年 後의 總會였는데, 이때의 「브레즈네프」演說은 「美國을 先頭로 하는 帝國主義者는 社會主義勢力을 弱화시키려 企圖하고, 또 그 崩壞하여 가는 立場을 保持하기 爲해, 더우기 잃은 것을 다시 쟁취하려고까지 하여 暴力과 侵略에 呼訴하고 있으며, 他國의 內政에 武力干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國際情勢를 深刻하게 複雜化시키고 있다.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蘇聯의 國防力과 對外政策上의 地位를 높이고, 議會主義諸國과 世界共產主義運動의 統一 強化에 關해서 積極的으로 努力 할 것을 要求하는 理由이다」고 國際情勢를 分析했다. 이어서 對美關係에 關해 「蘇·美關係는 매우 複雜化하고, 明確히 冷却化의 傾向을 보이고 있다. 蘇聯과 美國의 今後의 發展性格은 美指導者들이 社會主義國에 對한 侵略的 政策과 他國의 內政에의 干涉政策을 中止하도록 充分한 良識을 보이느냐 안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고, 「베트남」問題로 美·蘇關係가 크게 變했음을 밝혔다.

美·蘇關係「冷却化」의 現象은 具體的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65年 가을 美·蘇 文化 協定에 의거한 美國 劇團의 「헬로·롤러」의 訪蘇가 蘇聯측의 价入으로 延期되었으며, 66年~67年 文化交流協定이 締結되기 까지 6個月을 要했고, 12月 「코시긴」은 「뉴욕·타임즈」紙의 「레스턴」記者에게 「美國의 政策 덕분에 蘇

聯은 부득이 寫本豫算의 5%를 增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言明했으며, 66年 봄 蘇聯은 美國과의 스포츠 交流를 中止했다.

「베트남」戰爭에 依한 美·蘇關係의 複雜化에 따라 英·蘇關係도 微妙하게 變化했다. 新政權은 65年 1月 英國과의 사이에 首相의 相互訪問을 決定했었는데 2月の 北爆開始는 美國의 立場을 支持하는 英國과 蘇聯과의 關係에 影響을 주었다. 同年 3月 「그로미코」外相이 訪英했는데, 「월슨」首相의 訪蘇는 66年 2月까지 延期되는 結果가 되었다. 65年 11月 「스튜아트」英外相이 訪蘇했는데, 이에 앞서 「프라우다」와 「이스베스차」는 그때 까지 勞動黨政府에 注意하고 있던 態度를 變更하여 「베트남」問題, 「獨逸」問題, 「로데시아」問題를 들어 英國 勞動黨政府의 不徹底한 態度를 非難했다. 英首相의 訪蘇는 66年 2월에 實施되었는데 「베트남」問題에 關係서는 아무런 進展도 보이지 못하고, 同問題에 對한 蘇聯측의 壁이 극히 두텁다는 것이 確認되었는데 그쳤다. 다만, 「코시킨」首相의 訪英이 決定되었고, 또 兩國이 모든 水準에서 定期的으로 合議를 개최 할 希望이 確認되어 蘇聯이 「베트남」問題를 別途로 한다면 兩國關係의 改善을 希望한다는 것이 明確히 되었다.

英·蘇關係는 「후루시초프」時代의 64年頃 부터 友好의 友를 깊게 해왔다. 蘇聯으로서는 NATO內에서 獨身路線을 取하고 있는 「드·골」의 構想이 歐洲에 있어서의 美國 勢力의 排擠 내지 影響力減退라는 點에서 利害의 一致를 보았을 것이다. 64年 1月 仏財務相 「지스카·데스망」이 訪蘇하고, 「루도네프」蘇聯副首相이 訪仏한 것에 이어서, 同年 10月 仏蘇 長期 貿易協定이 更訴되어, 前 5年間의 貿易量의 70% 增을 豫定하고, 특히 蘇聯은 長期 「크

레디트」로 「프랑스」의 機械類 輸入을 倍增하기로 決定되었다.

65年 4月 「그로미코」外相이 訪俄, 10月에 「쿠브·드·뮈르빌」外相이 訪蘇하였으며, 더우기 66年 6月에는 「드·골」大統領이 訪蘇하여 蘇聯측의 丁重하고 盛大한 歡迎을 받았다. 「드·골」大統領의 訪蘇도 具體적인 成果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蘇聯의 對俄接近이 매우 積極의이고 그것은 美國의 歐洲에 있어서의 影響力의 弱化, 獨逸 問題를 포함한 歐洲安全保障問題를 爲한 基礎工事, 東歐 諸國의 西歐 接近에 對한 抑制 等 여러가지 目的을 갖는 것이었다.

#### (4) 第23回 黨大會의 對外政策

第23回 黨大會는, 對外政策에 關한 限 前 大會에서 採擇된 黨綱領의 路線을 그대로 再確認한데 그치고, 하등 새로운 方向 提示는 없었다. 大會의 決議는 「蘇聯 共產黨은 對外活動을 蘇聯國民의 根本的 利害 및 社會主義兄弟諸國과 모든 國家와의 勞動者에 對한 國際的 革命的 義務感에서 出發시키고 있다. 蘇聯의 對外政策은 他議會主義諸國과 함께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建設을 爲해서 좋은 國際環境을 만들고, 社會主義諸國의 統一과 團結, 그 兄弟關係를 強化하며 民族解放運動을 支持한다. 또 新生後進諸國과의 全面的 協力을 實現하고 시종일관 다른 體制의 나라들과의 平和共存의 原則을 主張하며, 帝國主義勢力에 단호히 저항하여 人類를 새로운 世界戰爭에서 回避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外交의 目的내지 原則은 黨綱領이 規定하고, 現政權이 推進해 온 外交政策의 基調이다.

黨大會에서의 「브레즈네프」 第1書記의 對外 活動에 關한 報告中 注目되는 諸點은 다음과 같다. ① 中共에 對해서 刺戟적인

表現은 一切 使用하지 않고 議會主義陣營에의 統一復歸를 呼訴하여 最高水準의 會談을 提案했다. ② 反帝國主義의 「共同行動」을 作成하기 爲해 世界共産黨會議의 開催를 提唱했다. ③ 美國과의 關係에 關해, 65年 9月의 黨中央委總會時의 「冷却化」에서 一步 前進하여 「美·蘇關係는 惡化했다」고 評價했다. ④ 「美國과 同盟하여 核兵器入手를 圖謀하는 西獨軍國主義를 격렬히 攻激했다.

⑤ 國際緊張緩和의 措置로서 특히 歐洲安全保障會議의 開催를 提唱했다. ⑥ 「베트남」問題에 關해서는 「美國의 侵略」 停止를 要求하고, 越盟支援의 態度를 再確認했다.

以上을 要約하면, 第23回 黨大會는 黨總綱이 定하는 蘇聯外交의 3가지 重點 ① 世界社會主義體制의 弱화, ② 民族解放鬪爭의 支援, ③ 平和共存原則의 推進을 充實히 踏襲해 갈 것을 明確히 했다.

이러한 基本的인 立場에 서서, 中共에 對해서는, 中共은 스스로 獨立化의 길을 걸어 가고 있다는 判斷에서 굳이 強硬措置를 取하지 않고 어른의 態度로 中共이 이속고 變化되는 것을 기다리며, 때에 따라 變化를 誘導한다는 態度이다.

美國에 對해서는 共存(協調가 아님)關係의 推進이라는 原則은 繼續하지만, 「베트남」問題에서는 ① 越盟으로 부터의 要請이 있을 때까지, 또는 ② 全面戰爭으로 發展할 危險을 느끼지 않는 範圍內에서 越盟援助를 繼續 增大하며, 美國과의 協商도 어디까지나 避할 生覺이다. 歐洲에 있어서는 「獨逸의 威脅」의 再現을 防止할 것에 全力을 올려 당분간 어떠한 形態로든간에 西獨의 核兵器入手 및 接近을 沮止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歐洲諸國과의 友好를 圖謀하고, 이리하여 蘇聯의 安全保障을 實現하려 하고 있다.